

# 아시아 학회를 다녀와서

분당차병원 소아청소년과  
조교수 정영호

2016년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Joint Congress of Asia Pacific Association of Allergy, Asthma and Clinical Immunology (APAAACI) and Asia Pacific Association of Pediatric Allergy, Respiriology & Immunology (APAPARI)" 가 개최되었다. APAPARI는 이전에 대만에서 개최할 때 한 번 참석하였었는데, 이번에는 APAAACI와 같이 하면서 규모가 좀 더 컸던 것 같다.

유럽이나 미국 학회에 갈 때에는 시차와 음식에 잘 적응하지 못해 학회 기간 내내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 비교적 온전한 컨디션으로 참석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물론 병원에서 허락한 시간은 많지 않아, 학회 전일까지 근무를 하고서야 간신히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밤 늦게 도착한 쿠알라룸푸르는 생각보다 공항에서 먼 거리였다. 인천공항에서 택시비만 겨우 급히 환전해 준비했던 말레이시아 링깃 화폐가 부족할까 마음을 내내 졸여야 했다. 고속도로를 한참 지나 비로소 시내에 들어서니, 여기저기 큰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말레이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이 많이 깨어졌다. 인도네시아와 인접한 국가임에도 현대화된 수준은 한국의 웬만한 대도시들을 넘어서 있었다.

말레이시아 물가가 비교적 싸고 좋은 호텔이 많아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방에 묵게 되었다. 식사비를 신경 쓰며 늘 팍팍한 살림을 살았는데, 이번에는 한결 마음이 편안했다. 짐을 방에 내려놓고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달려온 고단한 몸을 눕히니, 유명한 쌍둥이빌딩이 눈에 들어왔다. 한 개의 빌딩과 다른 빌딩을 연결하는 공중에 매달린 다리는 한국의 삼성에서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빌딩은 일본의 회사에서 지었다는 건물은 꼭대기까지 켜진 조명으로 멋진 야경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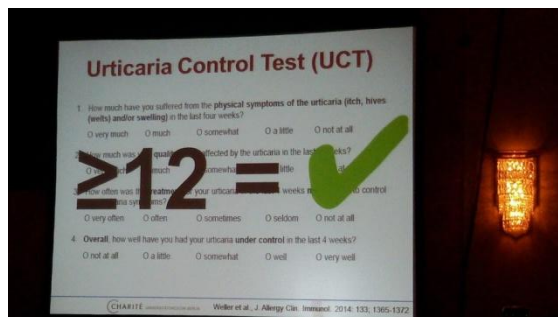


다음 날, 학회장으로 가 등록을 하기 위해 호텔을 나섰다. 첫날과 둘째 날은 학회장 근처에 있는 다른 호텔에서 묵었는데, 지리도 잘 모르고 날씨가 더워, 구글 맵을 보면서 땀을 한바탕 흘렸다. 쿠알라룸푸르의 도로에는 차도 꽤 많았는데, 횡단보도의 신호는 들어오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았다. 처음엔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말레이시아의 보행자 체계는 능력제라고 했다. 능력 있는 사람은 1분에도 몇 차례 지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정말 엉망인 것이다. 처음 방문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없어, 학회 장소인 상그릴라 호텔 앞 사거리에서만도 한참을 기다린 후 겨우 학회장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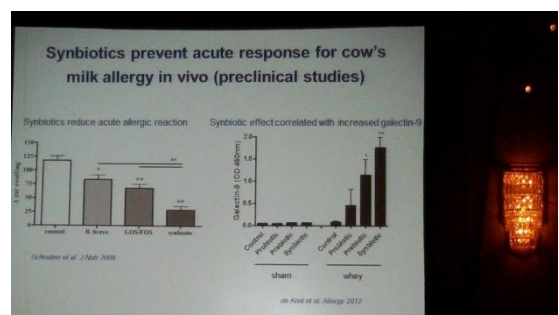


상그릴라 호텔은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에도 있고, 여행을 많이 하지 못한 내 귀에도 왠지 익숙한 이름이었다. 호텔에 들어서니 우리나라 신라호텔과 비슷한 클래식하지만 화려한 로비가 눈에 들어왔다. 10월이지만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와 비슷하게 후덥지근한 바깥 공기와 달리,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땀을 비오듯 흘린 나에게 오아시스 같이 느껴졌다. 한 편으로는 이렇게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면,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학회 기간 내내 두겹지 얇은 자켓을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니게 되었다.

이번 아시아 학회에는 외국인 연자들도 많이 초청되어 좋은 강의들을 들을 수 있었다. Marcus Maurer는 "Exploring Management of Urticaria: Discussion of Optimal Treatment Strategies"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는데, "Urticaria Control Test"라는 설문식 조사도구와 "TempTest"라는 한냉두드러기의 검사도구를 소개하였다. 둘 다 처음 접했는데, 객관적으로 정량하여 외래에서 환자들을 관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항히스타민제를 4배까지 용량을 증량하고, 그래도 안되면 omalizumab을 사용해볼 것도 추천하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인상깊었던 것은 prebiotics에 관한 Johan Garssen의 강의였다. 기존에 알던 probiotics의 효과는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prebiotics를 같이 첨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 것을 synbiotics라 칭하고, milk allergy에 효과를 나타낸 결과의 논문도 소개하였다.



내가 발표하였던 내용은 홈리모델링 때에 발생하는 환경유해물질이 아토피피부염에 영향을 준다

는 것이었는데, SCORAD를 조사인원 전체에서 시행해서 객관성을 높였다. 하지만, 환경유해물질에 대해 소변이나 혈액에서 검사를 전혀 하지 못해서 한계가 있었다. 올해 조사시에 이것을 보완했는데 소변에서 시행한 환경유해물질의 농도검사가 학회 때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작년에 조사한 것을 이번 학회에서 발표했다. 내년엔 다시 정리해 유럽학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무사히 학회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일상에 복귀하였다. 다음 날 바로 근무에 들어가서 다녀온 휴유증을 며칠 겪었지만, 모처럼만에 반복적인 일상에서 벗어나 refresh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 유럽이나 미국 못지 않게 아시아 학회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학회를 통해 느낄 수 있었고, 나도 앞으로 더 잘 준비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